

광주신보재단, 부적격업체 보증 수익 낭비

광주시, 자치구·직속기관 부적정 업무 194건 적발

그린카 재단·과학기술센터 규정 무시 직원 채용

광주시 일부 직속기관과 사업소, 자치구 등의 부적정 업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남구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부적정 업무 19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중 145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32건은 주의조치했다. 시는 또 지도·감독 소홀, 업무미숙, 직무태만 등의 직원 75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광주시의 민간 위탁 사무기관인 청소년 중장기 센터는 2010년~2012년까지 센터 소장 소유 승용차의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운영비로 지급했으며,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2012년부터 규정

에도 없는 임원 유틸비를 월 50만원씩 총 8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광주신보보증재단(이하 신보)은 매년 사고채권 급증(2011년 3637건 497억여원, 2012년 5686건 679억여원, 2013년 6475건 750억여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9명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농고도 특정 변호사 1명에게 위임 사건을 모두 맡아주는가 하면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 단순 소송조차 소송 대리인에게 맡겨 예산을 낭비했다.

신보는 또 보증 부적격 업체인 A회사를 적격업체로 승인해 3억5000여만원의 신용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방지하는 등 보증심사 및 사후관

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나 기관 경고령을 받았다.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도 여전했다.

신보는 직무와 관련된 증빙 자료 없이 휴일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가 하면 임직원의 배우자 생일 선물비로 140만원을 집행하는 등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47건 21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직원 채용 과정도 엉망이었다. 신보는 지난 2010년 결원이 없는데도 사무원을 신규 채용한 뒤 2011년에는 일반직원을 공개채용해야 함에도 특별채용 형태로 사무원을 내부 승진 임용했다.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은 지난 5월 일반직 5급(1명)을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채용공고를 냈으며,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지

난 5월 1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광주시장에게 채용계획을 알려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공개채용도 아닌 특별채용을 했다.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를 받은 남구청은 청소년 수련관·문화회관 위·수탁 운영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41건(시정 30, 주의 8, 개선 1, 통보 2건)이 지적을 받아 직원 26명이 훈계조치됐다. 남구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98명의 공무원여형을 보내면서 184명의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용으로 사용토록 하는가 하면 일부 직원은 해외 숙박요금을 부풀렸는데도 삭감하지 않고 지급했다. 또 남구는 주월동 신정사로 이전하면서 지난 9월 감사일 현재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사고 보상과 직결되는 보험가입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개발공 건설하도급 195억 미지급

감사원 특별점검

전남지역 일부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선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토착·건설 분야 민생 비리 특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5

월말까지 전남도 본청과 전남개발공사 본사가 발주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공사 49건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지급된 하도급 선급금은 모두 195억원이었다.

도 본청의 경우 전체 계약금 4352억원 중 법률상 252억원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하지만 111억원

(44%)만 건넸고, 140억원은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또 전남개발공사 본사도 총계약금 952억원 가운데 하도급에 지급해야 할 100억원 중 45억원만 정상 지급했고, 55억원은 감사 실시 시점까지 미지급된 상태다.

실제 도 본청이 발주한 화원~삼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583억 원 중 원도급자가 141억원을 수령한 반면 하도급 업체는 법정 지급액 75억원 중 21억원만 받았고, 나머지 53억원은 제때로 지급받지 못했다.

화양~나진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와 송현~남평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완도항 어선 정비시설 축조공사도 나란히 28억원, 25억원, 24억원의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로호 발사 성공’을 과학뉴스 1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올해 한국이 주목한 10대 과학기술 뉴스 1위에 ‘나로호(KSLV-1) 3차 발사 성공’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총은 3차례의 위헌 심의와 5437명의 과학기술인·국민 투표를 종합해 선정한 올해의 10대 과학기술에서 지난 1월 30일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소식이 71.8%(3903표)의 득표를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2위는 한국의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로 제작된 ‘곡면형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TV’다. 3위는 뇌 세포를 제거해 뇌를 투명하게 보는 기술의 개발, 4위는 폐암·유방암 전이를 차단하는 신물질 개발, 5위는 안전·비리로 사회적 수용성이 하락한 원전 문제가 선정됐다.

/*연협뉴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2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광화 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전남도내 천일염 합수를 이용해 2차 전지 원료로 각광받는 리튬(Li)을 추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천일염전 합수에서 리튬 캔다

〈鹹水·짭물〉

전남도-기초연 협약

전남지역 염전에서 사용하는 합수(鹹水·짭물)에서 희소 광물인 리튬(lithium)을 추출하는 기술이 산업화된다.

전남도는 12일 도청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과 천일염 합수를 이용한 유용금속추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는 기초연이 개발한 리튬 회수기술을 이용해 재래산업인 염전의 부가가치를 높여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염전합수에서 유용 금속 회수 산업 진흥 공동 협력 ▲염전

합수에서 유용 금속 회수를 위한 정부 R&D 사업 공동·발굴 및 기획 ▲관심분야 연구사업의 공동 도출 및 공동 수행 등을 협력해 나가게 된다.

기초연이 바닷물을 이용해 리튬을 추출한 결과 1ℓ 당 보통 바닷물에서는 0.18ppm, 간수는 0.59ppm, 합수는 3.2ppm에 달했다.

전남도는 신안과 영광 일대 천일염전에서 생산되는 합수에 주목하고 있다. 바닷물보다 합수의 리튬 농도가 전해 대규모 플랜트 설치 등이 필요 없는 점도 큰 장점이었다.

리튬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IT) 제품과 친환경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동차의 고효율 배터리를, 세라믹 등에

쓰이는 필수 물질이다. 광석에 포함돼 있지만 바닷물(합수)에 고농도로 녹아있다. 칠레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볼리비아가 우유니 소금호수 개발로 540만t 정도의 매장량이 확인되면서 리튬 대국으로 부상 중이다.

국내에선 생산되지 않아 연간 1만 2000여t을 수입하고 있다. 전 세계 매장량은 410만t이며, t당 가격은 6000달러, 2020년 국내 리튬시장 규모는 3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전남의 염전 면적은 3007ha로 전국(3778ha)의 80%, 생산량은 32만t으로 전국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발품 팔아 부정 농업 보조금 적발

도 감사관실, 감사원장 표창 받는다

전남도 감사관실(감사관 방옥길)이 농업보조금 관련 감사를 꼼꼼히 하고, 관련 감시 시스템을 만든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아 감사원장 표창을 받는다. 감사원이 지자체의 잘못을 꼬집고, 비리를 밝혀내는 일은 잦지만 ‘감사하러 왔다가 상을 주고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감사원은 12일 “전남도 감사관실이 적극적인 업무를 통해 농업보조금 관련 비리를 적절히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도 감사관

실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10여명의 감사인원을 투입, 이 지역 21개 시·군의 농업보조금 집행실태를 중점 감사해 79건(300억여원)을 적발했고 166건의 행정상 조치와 24억원의 재정적 조치를 내렸다. 특히 감사원은 일반 농업법인과 농민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본인 동의없이 계좌를 확인할 수 없고, 감사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도 전남도 감사관실이 이를 밝혀낸 점을 높게 평가했다.

농업보조금 관련 감사는 계좌추적 등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전국

적으로도 힘든 업무로 손꼽힌다. 하지만 도 감사관실은 인터넷으로 농기계를 거래하는 사이트를 조사해 지원된 농기계가 불법으로 거래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축산단지 등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가축 수를 비교하는 등 적극적으로 발품을 팔아 부정하게 사용되는 보조금을 찾아냈다.

또 감사 대상 농가가 많아 낮에는 현장 점검을 하고, 밤에는 서류를 검토하는 등 시간을 쪼개 감사를 진행했다. 방옥길 감사관은 “친환경 농업의 성공으로 전남지역 농업이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농업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출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쉽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거나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집:361-3515 양 동 지 집: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동양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062) 651-6581

의 010-3690-7790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궁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흥암지점 | 653-4474